

자연재난 보도의 특성 분석: 태풍 루사의 사례 연구

Media Reporting of Natural Disaster: the Case of Typhoon Rusa

김 만 재*
Kim, Man Jae

Abstract

The primary source of disaster information for victims as well as ordinary people is mass media. In spite of their importance, the media often inaccurately portrays reality, which has stimulated academic debates. In Korea, however, media reporting patterns of disaster have been hardly addressed. Therefore, this paper analyzes how newspaper and television news have reported typhoon Rusa between August 29 and October 1 in 2002 by using KINDS(Korean Integrated News Database System). The results show that television news tend to present more soft news stories emphasizing human interest stories than newspaper articles, relying on victims as primary interviewees. It is also pointed out that the Korean media do not play a significant role in providing disaster information to public regarding how to lessen the effects of impact through preparation. Disaster mythology representing wrong beliefs about human behavior in disaster is found in Korean media reporting, too. Unlike their western counterparts, however, Korean media seem to use the dependency image of helpless victims in order to stimulate donations. Analyses of disaster reporting patterns suggest that, to make disaster warning messages associated with behavioral responses, credible and official sources should provide clear and precise warning messages to the media, and the media also need to stress individual responsibilities in protecting his or her own properties not to make victims heavily dependent on public supports, while inducing donations.

key words : media reporting, media mythology, typhoon Rusa

요 지

매스 미디어는 재난 발생시 이재민 뿐 아니라 일반인들의 행동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에 매스 미디어의 역할은 재난 연구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재난보도에 관한 현황 분석조차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카인즈를 이용하여 2002년 8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태풍 루사에 관하여 신문과 텔레비전 뉴스에서 보도된 기사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에 의하면, 한국의 재난 보도에서는 일기예보를 활용한 사전 경보 기능이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재난 피해자들의 무기력한 모습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의존이미지라는 재난신화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재민들에 대한 이와 같은 묘사는 성금을 모집하는 데에는 지대한 공헌을 하였을지 모르지만, 사실을 왜곡함으로써 효율적인 방재계획을 수립하는 데에는 역기능적 역할을 수행하였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따라서 미디어를 활용한 효율적인 경보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재난경보가 복잡한 사회 과정보다 인식을 인식하여, 신뢰할만한 공식적인 기관이, 명확하고 구체적인 메시지를 매스 미디어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매스 미디어의 성금 모금은 필요 경비의 조달과 공동체 의식의 공고라는 순기능적 측면이 있지만 이재민의 의존적인 태도를 영속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매스 미디어를 통하여 정부가 수행해야 할 업무와 자산 소유주가 담당해야 할 책임간의 차이를 명확하게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핵심용어 : 재난 보도, 재난 신화, 태풍 루사

* 정희원 · 강릉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역개발학과 교수 (e-mail : mjkim@kangnung.ac.kr)

이 논문은 2003년도 강릉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1. 서론

재난 위험지역에서 인간이 더욱 정주하게 되고, 기술적 위험에 노출이 확대됨에 따라 (Auf der Heide, 1989: 6-7) 현대 사회에서 재난으로 인한 피해는 훨씬 더 광범위하고 심각해졌다. 최근에 발생한 쓰나미 피해를 위시하여, 2004년의 “기상이변. 자연재해 각국 ‘몸살’” (경향신문, 2004년 12월 27일), 2003년의 “대구지하철방화 192명 사망” (동아일보, 2003년 12월 24일), 2002년의 “태풍 ‘루사’ 강타 중부 최악 물난리” (경향신문, 2002년 12월 26일) 등이 각각 그 해의 국내외 10대 뉴스로 선정된 것만 보더라도 재난은 일상적이며 반복적으로 변모하였음을 알 수 있다.

굳이 10대 뉴스를 꼽지 않더라도, 일반인들은 매스 미디어를 통하여 가장 많은 정보를 제공받는다. 기존 연구를 보더라도 60-76%에 이르는 사람들은 TV와 라디오와 같은 미디어를 통하여 재난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Wenger, 1980: 243). 또한 미디어 활용은 효율적으로 사전 경보 기능을 강화하는 한 가지 방안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매스 미디어는 재난 발생시 이재민 뿐 아니라 일반인들의 행동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에 매스 미디어의 역할은 재난 연구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Kreps, 1980; Fischer, 1998). 특히 자연재난의 경우, 매스 미디어를 통한 경보 기능의 강화의 필요성은 널리 인식되어 왔다. 미국의 예를 들어, 힐로에서는 지역 과학자 및 전문가를 활용하여 라디오를 이용한 예고 체계를 개선한 결과 크레센트 보다 훨씬 더 신뢰성이 높은 경보 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Wenger, 1980).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매스 미디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체계적 정책 수립은 말할 것도 없고, 재난 보도의 현황 분석조차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2002년에 발생한 태풍 “루사” 사례를 중심으로 재난보도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한국 재난보도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매스 미디어의 순기능적 측면이 재난 정책 수립시 반영되도록, 결론에서는 미디어 활용 방안을 제안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재난의 개념, 재난에 대한 이론적 패러다임의 변화 및 미디어의 재난 보도를 살펴본다.

2. 재난과 재난보도에 관한 이론적 접근

2.1 재난의 개념

사회과학적인 배경에서 재난의 개념을 설명하는 데에는 프리츠의 고전적 정의가 흔히 인용되는데, 그는

“재난이란 사회 전체나 일부의 주기능이 손상될 정도로 물리적 손상과 사회적 붕괴가 일어나는, 특정 시간과 장소에 집중되어 발생하는 사건이다”라고 주장하였다 (Fritz, 1961: 655; Kreps, 1998: 32). 그의 개념 정의는 물질적 손상과 사회적 붕괴라는 두 가지 측면을 균형있게 강조하였기 때문에 재난 연구에서 널리 사용되어 왔다.

트랩스 또한 프리츠의 개념 정의에 기반하여 재난의 생애사(life history)적 측면을 강조하면서, “재난은 사회나 더 큰 하부조직(지역, 공동체)에서 사회적 붕괴와 물리적 손상이 일어나는 비주기적 사건이다. 이런 사건의 주요 구성 요소로는 (1) 경고 기간, (2) 영향 크기, (3) 영향 범위와 (4) 영향 기간이 있다”라고 언급하였다 (Kreps, 1998: 34). 그가 말한 네 가지 구성요소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경고 기간은 위험 상태의 확인에서부터 특정 지역에 실제 결과가 발생하는데 걸린 시간을 의미하고, 영향 크기는 사회적 붕괴와 물리적 손상의 심각성을 일컬으며, 영향 범위는 사회적, 지리적 영역을 나타내고, 마지막으로 영향 기간은 사회적 붕괴와 물리적 손상이 발생한 시점과 재난이 더 이상 이런 결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는 시점간의 기간을 말한다.

재난은 발생 가능성의 시작부터 영향력의 소멸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에 걸쳐 있을 뿐 아니라 행동적, 조직체적 대응 방식이 단계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재난 연구에서는 특별히 재난의 영향 기간에 초점을 맞추어 기간별로 세분화하기도 한다. 가장 세밀한 분류로는 영향이전 기간(pre-impact period), 영향 기간(impact period), 영향직후 기간 (immediate post-impact period), 복구 기간 (recovery period), 재건 기간 (reconstruction period) 등의 다섯 단계를 들 수 있다 (Fischer, 1998: 7-8). 영향이전 기간에서는 잠재적 피해자에게 충분한 경고를 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고, 영향기간은 시간적으로는 가장 짧지만 가장 위험한 시기이며, 영향직후 기간 동안에는 본격적인 구호 활동이 시작되고 미디어를 통해서도 가장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는데, 복구 기간을 통하여 기본 서비스 제공이나 보험 청구도 가능하여 다시 일상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되며, 마지막 재건 기간은 재난의 영향에 따라 원상 복구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재난의 개념 정의는 일견 단순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조직적, 법적 필요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구호의 기능을 강조하는 독일 적십자에서는 재난을 “일상생활이 갑자기 방해받기 때문에 보호, 음식

물, 의류, 주택, 의료적 사회적 구호가 요청되는 비상사태"라고 규정짓고 있다 (Dombrowsky, 1998: 20). 이에 반해 최근에 개정된 우리나라의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서는 자연재난 및 인적 재난과 더불어 사회적 재난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서 재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개념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의 개념에는 반드시 특정 지역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려운 정도의 상황이 발생하였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하지만 재난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손실의 정도는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 독일 보험회사에서는 백만 마르크 이상의 손실이나 천 명 이상의 인명 손실이 발생한 상황을 재난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Dombrowsky, 1998: 20). 또한 벨기에 루뱅대학교의 재난역학 연구소에서 1960년대 이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재난은 해당 지역에서 10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적어도 백 명 이상이 피해를 받은 경우, 심각한 재난은 사건당 사망자 수가 백 명 이상이거나, 손실액이 GNP의 1 퍼센트 이상, 피해 받은 사람 수가 전 인구의 1% 이상인 경우로 분석되었다 (Smith, 1996: 26-28).

2.2 재난에 대한 이론적 패러다임의 변화

재난에 관한 사회과학적 연구는 다른 분야에 비해 역사가 짧은 편이다. 재난을 인간 반응과 연결시킨 최초의 경험적 연구는 1920년에 등장하였고, 정부 지원을 받은 체계적인 연구는 1949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가능하게 되었다. 그 동안의 연구 결과를 분석하면, 재난에 대한 이론적 설명은 전쟁의 복사판, 사회적 취약성의 표현, 불확실성 상태로의 돌입이라는 세 가지 패러다임으로 분류될 수 있다 (Gilbert, 1998: 12-17). 먼저 첫 번째 패러다임은 전쟁과 재난은 모두 인간 집단에 대한 해로운 공격의 결과라는 유사성에 착안하여, 외부적 동인을 강조하면서 지역 공동체와의 갈등 관계를 부각시키는 접근법이다 (Fritz, 1961). 이런 이론들은 외부 적과의 대치를 강조하였던 냉전 시기 동안 미국에서 널리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외부의 파괴적 요소가 반드시 공동체를 공포 상태로 몰고 가지는 않는다는 경험적 연구가 등장함에 따라 (Gilbert, 1998: 12), 첫 번째 패러다임은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다.

이에 반해 두 번째 패러다임은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에 등장하였는데, 재난을 사회적 행위로 이해하려는 일련의 연구(Dombrowsky, 1981; Pelanda, 1981)에서 비롯되었다. 이에 따르면, 재난이란 사회적 취약성으로 인해 발생한 통제되지 않은 과정이기 때문에,

순전히 내부적 요인으로 등장한 사회적 위기가 폭발할 때 재난이 발생한다고 본다. 이 입장에서는 재난을 공동체의 내재적 논리의 결과로서 이해하기 때문에 외부적 요인을 완전히 제거하였다는 점에서 전쟁 패러다임과 정반대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복합사회에서 위험의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여전히 인명이나 자산 손실, 사회적 정치적 질서를 뒤흔드는 위협 등을 사용하는 전통적 방식을 고수하여, 첫 번째 패러다임이 내부적으로 방향을 돌린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세 번째 패러다임은 재난을 공동체 내 의사소통상의 위기로 간주하려는 시도에서 출발하였다 (Rosenthal et al., 1989). 이 입장에서는 타인으로부터 정보를 얻고 타인에게 정보를 주는 데서 비롯되는 어려움으로부터 재난이 발생된다고 주장한다. 이를 요약하면, 첫째, 재난은 위험이 공동체를 위협할 때 발생하는 불확실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둘째, 현대 공동체에서 등장하는 불확실성은 복잡성 증가와 연관되어 있다. 불확실성이란 사고나 심각한 역기능을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의미 체계에서의 혼란 때문에 생기는 결과이다. 이런 점에서 불확실성은 외부 요인이 아닌 공동체 조직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재난은 현대 사회에서 행위자들이 전통적 이해 방식과 상징적 변수로는 심각하거나 걱정스러운 상황을 설명할 수 없을 때 발생한다. 즉 재난이란 공동체가 일상의 정신적 틀을 통해서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세 번째 패러다임은 의미체계를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재난 연구에서 중요한 인명 상실, 피해, 사회적, 정치적 무질서 등을 지나치게 과소평가 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3 미디어의 재난 보도

재난이 의사소통상의 위기로 인한 불확실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이론적 접근에서 본다면, 재난 발생시 공동체 내에서의 위기감을 저하시키기 위한 효율적 방안 중의 하나는 매스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재난 관련 정보를 매스 미디어를 통해서 가장 먼저 접하기 때문에, 만약 미디어가 주민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준다면, 시청자들은 위기 발생시에도 정확하게 인식함으로써 의사소통상의 문제를 상당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Fischer, 1998: 37),

기존 연구를 살펴보다도 매스 미디어는 재난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음을 알 수 있다 (Ploughman, 1997). 재난 보도의 가장 전통적인 기능

은 재난 정보를 효율적이고도 신속하게 전달하는 것이다 (Perez-Lugo, 2004: 211-212), 대중은 정보를 받고, 해석하며, 개인화한 다음 그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이런 접근법에서는 책임 있게 자신의 생명과 자산을 구할 수 있도록 대중을 교육하는 미디어의 능력을 강조한다. 정확한 재난 보도로 재난과 관련된 사람들의 태도를 변화시켜 재난 대비 및 복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미디어는 대중과 정부간의 연결 고리일 뿐이고, 미디어-청취자(독자) 간의 관계는 전달되는 정보 내용에 의해서만 진적으로 유지될 뿐이다. 따라서 미디어가 자연재난의 준비와 반응에 효율적인지 혹은 재난 상황을 왜곡되게 보도하지는 않았는지의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재난을 보도하는 미디어의 역할은 재난 단계별로 달라질 수 있다 (Perez-Lugo, 2004: 212). 영향이전 기간에는 주로 접근하고 있는 재난에 관한 사실적 정보를 제공하고 재난의 영향을 즉각 대피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영향 기간과 영향직후 기간 및 복구 기간에는 가장 피해가 심한 지역에 관심을 집중하면서 피해와 손실을 추정하고, 공동체의 회복에 도움을 준다. 장기간의 재건 기간 동안에는 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미래에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영화, 뉴스, 특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든지 다른 지역의 재난을 보도하여 재난 정보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반면 미디어는 사실을 왜곡하고, 재난신화를 영속화시키는 데에도 기여한다 (Wenger, 1980; Fischer, 1998). 재난 신화란 대중들이 널리 받아들이고 심지어는 일부 위급 관리 요원들조차 믿고 있는, 재난 상황에서 인간이 취하는 행동에 관한 그릇된 믿음이다. 재난 발생시 대중이 갖고 있는 이미지로는 크게 공포 이미지, 의존 이미지, 통제 이미지가 있다 (Quarantelli, 1960). 공포 이미지를 통해서 히스테릭한 개인들이 무질서하게 탈출한다는 신화가 만들어지고, 의존 이미지를 통해서는 무기력한 피해자들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모든 것을 해주어야 한다는 신화가 만들어지며, 통제 이미지를 통해서 대피하는 동안 재난 피해자들이 통제될 수 있다고 믿는 신화가 만들어진다. 그 외에도 재난 지역에서 발생한다고 널리 믿고 있는 약탈, 바가지 현상, 이기적 행동 등은 재난 신화의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관찰, 인터뷰 및 실제 현장 조사 결과를 보면, 이러한 신화는 사실이 아니거나 지나치게 과장된 것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디어는 이러한 재난 신화를 대중에게 끊임없이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미디어가 확대 생산하는 재난 신화는 대중에게 왜곡된 이미지를 전달하여 사실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불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재난 계획 수립과 예방을 방해하는 역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3. 연구방법 및 재난보도 결과 분석

3.1 연구방법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기상관측 이해 가장 많은 강수량을 기록한 태풍 루사를 대상으로 재난보도 사례를 분석하였다. 특히 피해가 심했던 영동지역에서는 2002년 8월 30일 4시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였으며, 강릉권의 집중호우는 8월 31일 2시부터 9월 1일 1시까지 계속되었다. 영동지역 강우의 중심은 강릉권에 정제되어 국지성이 강한 비를 뿌림에 따라 강릉지역의 24시간 강우량은 최고 944.5mm를 기록하였고 (<http://www.nidp.go.kr>), 전국적인 피해규모는 인명피해 321명(사망 209명, 실종37, 부상75), 이재민 21,318세대 63,085명, 주택침수 27,562동, 농경지 유실이 17,749ha로서 재산피해는 5조 1,479억원에 이르렀다.

미디어 보도 분석을 위한 데이터로는 한국언론재단에서 제공하는 카인즈 (KINDS: Korean Integrated News Database System)를 이용하여 MBC 9시 뉴스와 조선일보 기사 중에서 2002년 8월 29일부터 10월 1일에 걸쳐 35일 동안 보도된 뉴스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뉴스 건수와 뉴스 내용수를 구분하였는데, 뉴스 건수는 방송이나 신문에서 독립된 기사로 보도되는 개별 뉴스를 말하는 반면, 뉴스 내용수는 한 가지 뉴스 기사가 두 개 이상의 다양한 내용과 관련되어 있을 경우, 내용별로 별개의 건수로 취급한 것을 의미한다.

중요 변수를 살펴보면, 우선 인터뷰 태도는 인터뷰 대상자들의 태도를 말하는 것으로서, 강한 태도는 인터뷰 대상자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주는 반면, 무력한 태도는 다른 사람이나 외부의 도움에 의존하는 모습을 제시한다. 재난기간은 다섯 단계로 세분되나, 본 연구에서는 실제 재난 발생을 중심으로 세 단계로 나누어 8월 29일에서 30일까지는 재난 이전 단계로, 8월 31일은 재난 단계로, 9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는 재난 이후 단계로 분류하였다.

뉴스 유형은 경성(hard) 뉴스와 연성(soft) 뉴스로 대별된다. 경성 뉴스는 날씨 상태, 비행기 여객수, 운송 화학 물질, 조종사의 비행 경력 등과 같이 주로 사건의 기술적 사실에 초점을 맞추는 뉴스를 말하고, 연성 뉴스는 인간적으로 흥미있는 이야기, 즉 행동 관찰이나 감정 등을 포함하여 생존자, 피해자, 구조 요원, 구경꾼

들이 제공하는 인터뷰 정보에 초점을 맞추는 뉴스를 말한다 (Fischer, 1998: 45).

뉴스 내용은 두 차례의 분류 작업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날씨, 피해, 성금, 정보, 정책, 복구 등의 여섯 종류로 대별하였다. 마지막으로 뉴스 제공자는 정부(정부 관료, 경찰, 기상청 등), 사기업체 직원(통신, 보험, 가전회사 직원 등), 일반인, 전문가, 기자, 피해자, 봉사자로 구분하였다.

본 자료는 SPSS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변수간의 유의미한 관계를 측정하는 데에는 카이제곱 검증을 사용하였다.

3.2 루사 보도 분석 결과

3.2.1 일반적 현황

해당 기간동안 뉴스를 분석하면, 신문은 135건, TV는 197건으로서, 총 332건의 뉴스가 루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뉴스 내용수로 재분류하면 신문은 187개, TV는 319개로 나타났다. 재난 발생 기간별로는 총 332건의 뉴스 중에서 재난 이전 단계는 7건의 기사밖에 없었고, 재난 단계는 26건, 재난 이후 단계는 299건으로서, 90%에 해당하는 뉴스가 재난 이후에 등장한 것이었다. 뉴스 내용별로 보더라도 이러한 현상은 비슷하여, 약 92%에 해당하는 464건의 뉴스 내용이 재난 이후 단계에 등장하였고, 재난 이전 단계와 재난 단계는 각각 7건 및 35건에 불과하였다.

뉴스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보도가 거의 반을 차지하였고, 약 20%의 뉴스는 성금 보도였으며, 복구 관련 기사는 16%를 차지하였다. 이에 반해 정책 관련 기사는 7.9%, 정보 제공은 3.6%, 날씨는 3.4%에 불과하였다. 또한 뉴스 내용을 제공자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가장 큰 비중(58.9%)을 차지한 기자를 제외하고는 피해자가 16.4%, 정부가 13%로 상대적 비중이 높은 편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일반인 4.0%, 봉사자 3.0%, 전문가 2.8%, 사기업체직원 2.0%의 순이었다.

뉴스 내용을 뉴스 유형별로 분석하면 경성 뉴스는 64.4%인 반면, 연성 뉴스는 35.6%로 분류되었다. 또한 전체 뉴스 내용 중에서 인터뷰는 총 102건이었는데, 이를 태도를 중심으로 재분류하면 강한 태도는 35.3%이고 무력한 태도는 64.7%를 차지하였다.

3.2.2 신문과 TV의 보도 비교 분석

재난 보도에 있어서 신문과 TV의 차이점은 이미 기존 연구에서 지적된 바가 있다 (Fischer, 1998).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TV는 신문에 비하여 감성적인 뉴스를 보도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

우에도 재난기간, 뉴스형태, 인터뷰 태도, 뉴스내용, 뉴스 제공자를 중심으로 분석할 때, 두 보도 매체는 모든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 1 참조).

표 1. 신문과 TV의 재난 보도 비교

	신문 (%)	TV (%)
재난기간***		
재난 이전 단계	1 (0.5)	6 (1.9)
재난 단계	2 (1.1)	33 (10.3)
재난 이후 단계	184 (98.4)	280 (87.8)
뉴스 형태***		
경성 뉴스	151 (80.7)	175 (54.9)
연성 뉴스	36 (19.3)	144 (45.1)
인터뷰 태도***		
강한 태도	15 (8.0)	21 (6.6)
무력한 태도	12 (6.4)	54 (16.9)
미관련	160 (85.6)	244 (76.5)
뉴스 내용***		
날씨	9 (4.8)	8 (2.5)
피해	56 (29.9)	192 (60.2)
성금	62 (33.2)	40 (12.5)
정보	12 (6.4)	6 (1.9)
정책	26 (13.9)	14 (4.4)
복구	22 (11.8)	59 (18.5)
뉴스 제공자***		
정부 관료	32 (17.1)	34 (10.7)
사기업체 직원	5 (2.7)	5 (1.6)
일반인	10 (5.3)	10 (3.1)
전문가	4 (2.1)	10 (3.1)
기자	113 (60.4)	185 (58.0)
피해자	16 (8.6)	67 (21.0)
봉사자	7 (3.7)	8 (2.5)
	187 (100.0)	319 (100.0)

주) ***: p<.001

우선 재난기간에 있어서는 TV가 신문보다 더 즉각적인 반응을 하였고, 뉴스 형태에 있어서는 TV는 감성에 호소하는 연성 뉴스의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이러한 차이는 인터뷰 기사에서도 마찬가지로여서, 신문은 인터뷰를 통해 강한 이미지를 제시하는 반면, TV는 무력한 이미지를 보여 주는 경향이 강하였다. 뉴스 내용을 분석하기 위하여 성금을 제외한 실제 뉴스 내용을 살펴보면, TV는 피해 상황에 관하여 유난히 높은 비중으로 보도하였고 복구에 관한 뉴스도 많이 보도한 반면, 신문에서는 피해와 복구에 관한 비중이 낮은 대신 정책 및 정보에 대한 보도 비중이 높은 편이었다. 뉴스 제공자를 중심으로 비교하면, TV에서는 피해자의 뉴

스 제공 비율이 유독 높았고, 신문에서는 정부 관료에 주로 의존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3.2.3 재난 기간별 비교 분석

재난 기간별 비교 분석은 재난 이전 단계의 사례수가 지나치게 적기 때문에 카이제곱 지수를 적용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하지만 기간별 보도 형태 분석을 통해 재난보도의 특성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우선 재난 이전 단계에는 객관적인 뉴스만 보도되다가 점차 연성 뉴스의 비중이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인터뷰 태도에서는 재난 발생 동안에는 무력한 태도만 제시되다가 재난 이후 단계에는 인터뷰 뉴스가 증가하면서 강한 태도도 등장하였다.

뉴스 내용으로 살펴보면 재난 이전에는 날씨 보도에 집중되다가 재난 동안에는 피해 보도가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재난 이후 단계에는 피해 보도의 상대적 비중이 감소한 반면 성금 및 복구, 정책 뉴스의 비중이 증가하는 등 뉴스 내용이 다양하게 변화되었는데, 이는 뉴스 제공자의 다양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2.4 뉴스 제공자별 비교 분석

뉴스 제공자별 비교 분석 또한 사례수의 한계 때문에 카이 제곱 검증이 무의미하였지만, 총 506건의 뉴스 내용 제공자 중에서 전문가가 연관된 경우는 14건에 불과하여 전문가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낮을 뿐 아니라, 이들의 기여는 피해 보도로 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피해자는 연성 뉴스, 무력한 태도, 피해와 관련된 뉴스에 등장하는 반면, 봉사자는 강한 태도와 관련된 뉴스에 집중되어 있어, 피해자와 봉사자는 대립적 이미지로 표현되었다. 반면 정부 관료는 가장 다양한 측면에서 뉴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3.2.5 재난보도의 특성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디어의 재난보도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는 대중에게 재난 접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인위적 재난의 경우에는 사전 경보가 불가능할 수도 있으나 루사와 같은 자연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일기예보 등을 활용한 사전 경보가 가능하다. 따라서 미디어의 효율적인 활용은 재난 피해를 경감시키는데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표 2. 재난 기간별 비교

	재난 이전 단계	재난 단계	재난 이후 단계
뉴스 형태			
경성 뉴스	7(100.0)	26(74.3)	293(63.1)
연성 뉴스	-	9(25.7)	171(36.9)
인터뷰 태도			
강한 태도	-	-	36(7.8)
무력한 태도	-	5(14.3)	61(13.1)
미관련	7(100.0)	30(85.7)	367(79.1)
뉴스 내용			
날씨	6(85.7)	3(8.6)	8(1.7)
피해	1(14.3)	29(82.9)	218(47.0)
성금	-	1(2.9)	101(21.8)
정보	-	2(5.7)	16(3.4)
정책	-	-	40(8.6)
복구	-	-	81(17.5)
뉴스 제공자			
정부 관료	6(85.7)	5(14.3)	55(11.9)
사기업체 직원	-	-	10(2.2)
일반인	-	-	20(4.3)
전문가	-	-	14(3.0)
기자	1(14.3)	23(65.7)	274(59.1)
피해자	-	7(20.0)	76(16.4)
봉사자	-	-	15(3.2)
	7(100.0)	35(100.0)	464(100.0)

표 3. 뉴스 제공자별 비교

	정부 관료	비정부관료	일반인	전문가	기자	피해자	봉사자
뉴스 형태							
경성 뉴스	59(89.4)	9(90.0)	8(40.0)	14(100.0)	223(74.8)	10(12.0)	3(20.0)
연성 뉴스	7(10.6)	1(10.0)	12(60.0)	-	75(25.2)	73(88.0)	12(80.0)
인터뷰 태도							
강한 태도	5(7.6)	-	9(45.0)	-	1(0.3)	9(10.8)	12(80.0)
무력한 태도	2(3.0)	-	-	-	-	64(77.1)	-
미관련	59(89.4)	10(100.0)	11(55.0)	14(100.0)	297(99.7)	10(12.0)	3(20.0)
뉴스 내용							
날씨	13(19.7)	-	-	-	4(1.3)	-	-
피해	20(30.3)	4(40.0)	7(35.0)	11(78.6)	140(47.0)	66(79.5)	-
성금	3(4.5)	-	8(40.0)	-	89(29.9)	-	2(13.3)
정보	4(6.1)	4(40.0)	-	-	9(3.0)	1(1.2)	-
정책	17(25.8)	1(10.0)	-	2(14.3)	18(6.0)	2(2.4)	-
복구	9(13.6)	1(10.0)	5(25.0)	1(7.1)	38(12.8)	14(16.9)	13(86.7)
	66(100.0)	10(100.0)	20(100.0)	14(100.0)	298(100.0)	83(100.0)	15(100.0)

하지만 루사의 경우에는 뉴스 건수로는 2.1%, 뉴스 내용 건수로는 1.4%의 보도만이 사전 경고성 보도에 해당하여, 매스 미디어의 경고 기능이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1988년 9월에 발생한 허리케인 길버트의 사례에서는 42%에 해당하는 뉴스가 재난 발생 이전에 일기예보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에 비해 볼 때 (Fischer, 1998: 65), 이 수치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편이다. 본 논문에서는 TV의 경우 특정 시간의 뉴스만 대상으로 하였고, 재난 후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길버트와 루사를 직접 비교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루사의 사전 경고 기능은 상당히 제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한국의 미디어 또한 재난 신화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특히 피해자들의 의존적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피해자들은 기사를 제외하고는 가장 비중이 높은 뉴스 제공자로서, 주로 인터뷰를 통하여 감성적이고 무기력한 모습을 지닌 것으로 표출되었다. 하지만 미국에서 실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외부의 도움에 무조건적으로 의존하기 보다는 재난 지역 내에서 가장 먼저 구호 활동을 펼치는 활발한 집단인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Dynes, Quarantelli and Wenger, 1990). 루사의 미디어 보도에서는 이런 부분이 완전히 무시된 채, 피해자들은 일방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집단으로서만 묘사되었다. 특히 신문보다는 TV가 피해자들에 관한 재난 신화 생산에 훨씬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보도와 관련하여 미디어가 행하는 긍정적인 역

할 중의 하나는 성금 모금이다. 한국의 미디어는 이런 역할을 가장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비단 루사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성금 모금은 범국민적인 행사가 되어 있는데, 이처럼 미디어를 통해 모금된 성금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이재민에게 전달된다. 2002년에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 모금한 성금은 약 1,448억원으로서, 이 중에서 방송사는 904억원으로 62.4%, 신문사는 371억원으로 25.6%를 차지하였다. 이는 2001년의 총 모금액 168억 원에 비하면 거의 9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었다 (<http://www.relief.or.kr>),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 같은 해에 지원한 총액은 1,330억원으로서, 이 중에서 태풍 루사 피해 관련 지원금은 1,111억원이었다. 이처럼 기부를 자극하는 것은 미디어의 긍정적 기능 중의 하나임에는 틀림없지만, 매스 미디어 보도에서 성금 내용이 전체 보도 내용의 20.2%를 차지하는 것은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는 발견되기 어려운 한국만의 독특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2002년에 발생한 태풍 루사의 미디어 보도 분석을 위해서 2002년 8월 29일부터 10월 1일에 걸쳐 MBC 9시 뉴스와 조선일보 기사를 분석하였다. 관련 뉴스수와 뉴스내용수는 재난 발생 이후에 집중되었고 일반적으로 피해보도, 성금보도, 또는 복구관련보도가 주종을 이루었다. 미디어는 사전 경보가 가능한 자연재난의 특성상 요구되는 경고 예보 기능을 거의 수행하지 못하였으며, 한편으로는 피해자들의 의존적 이

미지가 강화된 재난 신화를 생산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한국 미디어는 이재민들의 피해 및 참상을 감성적으로 보도하는 연성적 뉴스 기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성금을 모금하는 보도 특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의 취약한 자연재난 경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방재 관련 기관들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지방 라디오 방송국이 독자적인 경보 체계를 운영하여 사전에 토네이도 발생 지역과 움직임은 방송함으로써 인명 피해를 경감시킨 사례도 있지만 (Kreps, 1980: 61), 이는 상당히 예외적인 경우에 속한다. 언론 기관이 자체적으로 체계적인 재난 보도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외부 기관이 정보를 제공하고, 매스 미디어는 이를 적시에 보도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수립하는 경보 및 대피 계획의 근간이 되는 제1차(2005~2009)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의하면, 수해 발생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피장소, 대피로를 미리 지정하여 주민에게 홍보하고, 재난발생시 대피유도 계획을 수립하며, 노약자, 장애인, 외국인 등을 위한 안내표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재난 예·경보를 신속하게 전파하기 위하여 언론매체를 통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는 기상특보, 재난 예·경보의 신속한 보도, KBS 등 방송매체를 활용한 재난정보 전파체계 확립, 문자 방송 또는 생방송체제로 긴급뉴스 방송 실시 등이 포함되어 있다 (행정자치부, 2004).

이러한 재난 경보 및 대피 계획은 한 편으로는 과거보다 진일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다른 한 편으로는 또 다른 재난신화의 표출이라고도 할 수 있다. 즉 이러한 계획의 저변에는 재난 위협이 임박했다는 경고가 나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즉각 대피하고, 공공 대피소를 이용할 것이라는 믿음이 뒷받침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사람들은 경고를 들어도 이동하려고 하지 않으며, 최후의 대안으로 공공 대피소를 선택할 뿐이라고 한다 (<http://commed2.atu.edu/EAM3033/Lessons/SLGlist.htm>).

이런 점을 통해서 볼 때, 재난 경고는 일방적인 전달 과정이 아니라 복잡한 사회적 과정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경보를 받아들이는 행위자들은 획일적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경고에 대하여 사람마다 다르게 듣고, 믿고, 기억하며, 자신이 들은 것에 대해서도 각자 다른 행동 양식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지 소스가 신뢰할만하고, 공식적이며, 메시지의 내용이 명확하고, 일관되며, 구체적이고, 반복

적일 뿐 아니라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위기관리자들이 원하는 대로 이재민들이 행동할 확률이 높다 (<http://commed2.atu.edu/EAM3033/Lessons/SLGlist.htm>).

따라서 효율적인 경보 체제가 되기 위해서는 막연하게 사태의 심각성을 경고할 것이 아니라, 누가, 어디로, 어떤 경로를 통해 피신해야 하는지 구체적이고도 적절한 행동 지침을 제시해야 하고, 미디어를 활용하여 반복적으로 보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한국의 미디어가 담당하고 있는 성금 모금은 필요 경비의 조달과 공동체 의식의 공고라는 점에서 순기능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역할이 기대된다. 하지만 성금 강조는 이재민의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태도를 더욱 영속시킬 위험도 있다. 따라서 매스 미디어를 통해 개인 재산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자산 소유주에게 있다는 점과 재난보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보도함으로써, 정부가 수행해야 할 업무와 개인이 담당해야 할 책임의 차이를 명확하게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경향신문, 2002년 12월 26일 10면, 2004년 12월 27일 11면
 동아일보, 2003년 12월 24일 14면
 행정자치부 (2004).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주요내용 설명자료**.
 Auf der Heide, Erik (1989). *Disaster Response: Principles of Preparation and Coordination*. C.V. Mosby Company, St. Louis, Missouri.
 Dombrowsky, W. (1981). Another Step toward a Social Theory of Disaster. *Preliminary Paper # 70*. Disaster Research Center, University of Delaware, Newark, DE.
 Dombrowsky, W. (1998). Again and Again: Is a Disaster What We Call a "Disaster"? *What is a Disaster?*, Edited by Quarantelli, E. Routledge, London and New York, pp. 19-30.
 Dynes, R., Quarantelli, E. and Wenger, D. (1990). *Individual and Organizational Response to the 1985 Earthquake in Mexico City, Mexico*. Disaster Research Center, University of Delaware, Newark, DE.
 Fischer, H. (1998). *Response to Disaster: Fact Versus Fiction & Its Perpetuation The Sociology of Disaster*. University Press of America, Inc.,

- Lanham.
- Fritz, C. (1961). Disasters. *Social Problems*, Edited by Merton, R. and Nisbet, R. Harcourt Brace, New York.
- Gilbert, C. (1998). Studying Disaster: Changes in the Main Conceptual Tools. *What is a Disaster?*, Edited by Quarantelli, E. Routledge, London and New York, pp. 11-18.
- Kreps, G. A. (1980). Research Needs and Policy Issues on Mass Media Disaster Reporting. *Disasters and the Mass Media*, Edited by Committee on Disasters and the Mass Media.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Washington, D.C., pp. 35-74.
- Kreps, G. A. (1998). Disaster as Systemic Event and Social Catalyst. *What is a Disaster?*, Edited by Quarantelli, E. Routledge, London and New York, pp. 31-55.
- Palenda, C. (1981). Disasters and Sociosystemic Vulnerability. *Preliminary Paper #68*. Disaster Research Center, University of Delaware, Newark, DE.
- Perez-Lugo, M. (2004). Media Uses in Disaster Situations: A New Focus on the Impact Phase. *Sociological Inquiry*, Vol 74, No. 2, pp. 210-225.
- Ploughman, P. (1997). Disasters, the Media and Social Structures: A Typology of Credibility Hierarchy Persistence Based on Newspaper Coverage of the Love Canal and Six Other Disasters. *Disasters*, Vol. 21, No. 2, pp. 118-137.
- Quarantelli, E. (1960). Images of Withdrawal Behavior in Disasters: Some Basic Misconceptions. *Social Problems*, Vol. 8, pp. 68-79.
- Rosenthal, U. Kouzmin, A. and 't Hart P. (1989). *Coping with Crisis: The Management of Disasters, Riots and Terrorism*. Charles C. Thomas, Springfield IL.
- Smith, K. (1996). *Environmental Hazards*. Routledge, London and New York.
- Wenger, D. E. (1980). A Few Empirical Observations Concer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ass Media and Disaster Knowledge: A Research Report. *Disasters and the Mass Media*, Edited by Committee on Disasters and the Mass Media.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Washington, D.C., pp. 241-253.
- <http://commed2.atu.edu/EAM3033/Lessons/SLGlist.htm>
<http://www.nidp.go.kr>
<http://www.relief.or.kr>
- © 논문접수일 : 2005년 07월 11일
 © 심사의뢰일 : 2005년 07월 18일
 © 심사완료일 : 2005년 08월 12일